

국제사회 “즉각 석방” 중국 “죄인” 류샤오보 노벨평화상 거센 후폭풍

中 인권개선·위안화 절상 ‘이중 압박’ 곤혹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5)가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중국과 국제사회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중국 정부는 8일 수상자 발표 직후 류샤오보는 죄인이라고 선을 긋고,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노벨상 취지에 배치되는 일이며 중국과 노르웨이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곧바로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을 소환해 노벨위원회에 결정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는 류샤오보의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자국의 인권문제가 안팎에서 문제시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선제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류샤오보의 석방과 중국 내 인권개선 요구에 고삐를 조일 태세다.

작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류샤오보를 “보편적 가치의 진전을 설득력 있고 용감하

게 대변해 온 인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가 중국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평화적인 정치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이 국제 인권법의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나바네텔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류샤오보는 매우 저명한 인권의 수호자”라며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환영 성명을 내면서 “중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대세에 동참했다”며 노벨평화상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스위스 등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특히 수감 중인 류샤오보가 직접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중국 정부를 자극했다.

중국은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과 더불어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의 동시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개막 연설에서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의 균형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거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찰스 프리먼은 “중국이 스스로 원하는 것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국제사회는 중국을 주요한 강대국으로 대하러 하지만, 중국은 이를 원치 않고 국내 발전에 주목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손학규 체제 일주일...연착륙 성공?

對興 강공 드라이브·당내 통합 메시지 “무난한 출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취임 일주일 을 맞은 가운데 나름대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일주일동안 대외(對興) 강공 드라이브로 강한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당내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며 비교적 무난하게 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 대표는 4대강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지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민투표 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강 원도 배추밭과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잇

따라 찾아 바다 민심 잡기에 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내에서 손 대표는 통합을 화두로 ‘로우키(low-ke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직 인사도 ‘능력 중심의 탕평인사’ 원칙 을 내세우며 서두르지 않고 있다.

손 대표는 부산 출신의 486 인사인 김영춘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한 이 후 당직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단 사무총장에는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3선의 정장선 의원이 유력하게 꼽

히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변인에는 손 대표의 직계인 이춘석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중립 성향의 박선속 의원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비서실장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철 의원과 조성식, 양승조,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일단 무난한 출발이라는 평가지만 손 대표가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는 그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친박 “박근혜 대권행보는 내년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본격적 대권행보는 언제쯤 시작될까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보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치권 재진입으로 대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는 박 전 대표의 본격적인 대권행보 시작 시점을 대략 내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까지는 정국회화이기 때문에 이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은 기간 동안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소속된 기획재정위를 통해 약점으로 지적됐던 경제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펼쳐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친이(친이명박)계 의원과의 만남을 한

증 강화하는 등 당내 기반 확보에도 전념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두 가지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고 박 전 대표는 내년 초 본격적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외부 강연 정치’를 시작하거나 그동안 자체해온 언론과의 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방문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정치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람을 위한 경제’라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며, 김중년 전 의원의로부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 친박 인사는 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등장이라는 외부 요인과 지난 2007년에는 대권행보가 너무 늦었다는 반성으로 인해

내년 초 대권행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친박인사를 사이에서 이심전심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서구청장 재선

내일부터 후보 등록

오는 27일 실시되는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12일~13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민주당의 김선옥 후보,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의 서대석 후보, 무소속 김종식·박금자·송세선 후보 등 5명이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가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열병식서 김정일·정은 ‘나란히’

북한은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그 상황을 사상 처음 TV와 라디오로 생중계했다.

오전 10시 열병식 주석단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천히 걸어나와 자리를 잡았으며,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와 북한 전문가들은 이날 열병식은 대내외에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해외 취재진까지 대거 초청해 1만여 명의 병력 등이 참가한 열병식을 거행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서 김정은을 부각시키고 군부가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연합뉴스

10·27 재선 현장

김선옥, 얼굴 알리기 분주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휴일인 10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관내 종교 시설과 축구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주동 성당과 광천교회, 번성교회, 미문교회를 각각 방문해 미사와 예배를 드리며 참석한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또 오후에는 상무지구 모아파트 축구장을 찾아 “생활체육인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밤에는 여성 경제인들을 만나 “여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식 “매일동서 자동차등록”

김종식 무소속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광주 서구 매일동 중도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등록 장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매일동 단지에 자동차등록 출장 사업소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이고 징수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수수료로 챙겨 실익은 크지 않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출장 사업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2012년까지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도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대석, 야 4당 관계자 격려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0일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뒤 창조한국당의 공성경 대표를 시작으로 야 4당 관계자들의 격려와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에 따르면 최근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단일 후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도 광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비민주 야 4당 단일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도 이정희 대표도 지지방문과 지원 유세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노갈매기

갈/매/기/살/전/문/점

나노갈매기 [Gⁿ FOO (주)지앤푸]

전라도 (전북·전남) 지사를 모집합니다.

냉장육을 직접 수입, 유통함으로써 파격적인 원가 절감!!!
효과로 고품질 냉장육을 저렴한 단가에 공급 합니다.

지사모집 안내

- 계약주체 : Gⁿ FOO (주)지앤푸
- 영업방식 : 전라도 (전북·전남)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영업권 운영
- 가입문의 : 1577-81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nanomeat.kr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